

2008년 봄학기  
전시간 훈련의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믿는이들

메시지 38

그들의 현재—신성한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기 위한 신성한 변화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를 누림

(2)

성경: 고후 5:14-15, 롬 14:7-9

- I. 우리는 주님의 명예를 메고 주님께에서 배움으로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를 누린다—  
마 11:28-30, 참조 엡 4:20-21.
- A. 주님의 명예를 메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편하고, 좋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온화하고, 유쾌하다—이것은 어렵고, 엄하고, 날카롭고, 괴로운 것과 대조된다—요 4:34, 5:30, 6:38, 사 7:14-15, 참조 요 6:57.
  - B. 주님의 짐은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일이다. 그러한 짐은 가벼워, 결코 무겁지 않다—4:10, 14, 7:37-38, 고후 2:13, 롬 14:17-18, 빌 2:12-16.
  - C. 주님의 명예를 메고 그분께 배움으로써 우리가 얻는 안식은 우리의 혼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율법이나 종교나 어떤 일이나 책임 아래서의 수고나 짐에서 해방되는 것만이 아니라 온전한 평강과 완전한 만족을 가리키는 내적 안식이다—  
마 12:8, 사 56:2, 58:3, 출 31:13-14.
- II. 우리는 그리스도를 삶으로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를 누린다—고후 5:14-15, 롬 14:7-9.
- A.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의 목표로 취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지시와 통제와 지배 아래 있다는 것과, 그분의 목적을 이루고 그분의 갈망을 만족케 하며 그분이 의도하시는 바를 완성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9 절.
  - B.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 사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시와 통제와 지배 아래 있다는 것과, 자아를 우리의 생활의 목표로 취하여 우리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관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C.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이다—고후 5:14.
    - 1. ‘강권하다’ 라는 헬라어는 ‘사방에서 압박하고, 한 끝으로 밀어붙이며, 강하게 제한하고, 어떤 테두리 안에서 한 목표를 향해 한정시키며, 하나의 노선과 목적을 향하도록 가두는 것(마치 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길에서처럼)’을 의미한다.
    - 2. 우리는 주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항상 기꺼이 그분의 길을 취하기를 자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유일한 목표—그리스도 자신—를 향해 제한하고, 좁은 길로 가두고, 벽으로 둘러싼다—빌 3:14.
    - 3. 그리스도께서 기쁘게 해 주심에 강권되고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에 강권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될 수 있게 한다—삿 9:13, 고후 5:18-20, 아 1:2, 참조 4:10.

- D.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사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시기 위해 죽으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과 우리가 그분께 속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이다—롬 14:7-9, 고전 6:19-20, 벧전 1:18-19.

**III. 우리는 영—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우리의 영—을 따라 행함(살고 움직이고 처신함)으로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를 누린다—롬 8:4, 2, 9, 16.**

- A. 그 영에 의해 사는 것은 그 영을 우리의 생활의 본질로 취하여 우리의 생활이 그 영을 의지하고 그 영에 규제받는 것이다. 그 영에 의해 행하는 것은 그 영을 우리의 길의 궤도로 취하여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과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의 행동들이 그 영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갈 5:16, 25.
- B. 그 영에 의해 행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그 영을 공급하는 이들은 사람을 존귀하게 한다—고후 3:6, 8, 삼상 2:30, 요 12:26.
- C.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혼을 소생시키심(부흥시키고 변화시킴)으로, 그리고 신성한 생명의 흐름 안에서 영에 따라 의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목양하신다—시 23:3, 롬 8:4, 계 7:17, 22:1.
- D. 우리의 영을 주의함으로, 영의 느낌을 관심함으로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하고, 생명의 영의 법은 자동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킨다—롬 8:2, 4, 6.
- E. 우리는 그 영에 의해 행하고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그 영에 의해 봉사할 때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않고 자동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영의 열매를 맺는다—갈 5:16, 22-25, 빌 3:3, 롬 1:9.
- F. 우리는 그 영에 의해 행하여 그 영의 열매를 맺거나, 육체에 의해 행하여 육체의 일들을 나타낸다—갈 5:16-26, 6:12, 빌 3:3.
- G. 우리가 중보기도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함으로 그 영에 의해 행한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육체를 패배시키고, 육체의 배후에 숨어 있는 마귀를 패배시킨다. 우리가 이렇게 육체에 대적하여 싸우는 싸움에서 이길 때 그리스도를 표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될 것이다—출 17:8-16.

**IV. 우리는 그 영을 위하여, 즉 그 영에 이르도록 씨를 뿌림으로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를 누린다—갈 6:7-10.**

- A. 그 영을 위하여 씨를 뿌린다는 것은 그 영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씨를 뿌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 영을 우리의 목표로 하는 것이다.
1. 사실상, 그 영에 의해 행하는 것이 그 영을 위해 씨를 뿌리는 것이다—5:16.
  2. 우리의 삶과 생활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 영을 우리의 목표로 취하여 그 영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6:8.
  3. 하나님의 경륜은 그 영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 모든 것을 포함하신 삼일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목표로 취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다—3:5 상, 14, 참조 빌 2:13.
- B. 육체를 위해 씨를 뿌린다는 것은 육체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씨를 뿌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육체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1. 육체와 그 영 사이에 중간 지대는 없다. 우리의 목표는 둘 중 하나, 이것 아니면 저것이다—롬 8:6.
  2.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의 육체를 위해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면 그 영을 위해 씨를 뿌리는 것이고, 우리가 씨를 뿌린 것은 다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든가 아니면 그 영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수확을 가져올 것이다—시 126:5, 잠 22:8 상, 호 8:7 상.

3. 우리가 육체를 위해 산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일을 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이다—참조 막 4:14, 신 22:9.
- C. 우리의 목표가 그 영일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나 교회들에게 생명의 공급이 된다—갈 6:10, 고후 3:6.
- D. 우리가 그 영을 위해 씨를 뿌릴 때, 그 영은 우리를 새 창조물이 되게 한다.
1. 새 창조물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을 그들의 목표로 취하고, 그분을 목적 삼고, 그분과 한 영 되어, 그 결과 신성한 요소가 그들 안으로 옮겨 부어져 그들을 재조성하고 새롭게 만든 것이다—갈 6:14-15.
  2. 영원한 생명의 궁극적인 완결인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그 영을 위해 씨를 뿌린 것의 완결된 결과와 수확일 것이다—8 하, 요 4:14 하, 계 22:1-2.
  3. 주님은 그분의 회복 안에서, 모든 것에 있어서 그 영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그분에 이르도록 살아 영원한 생명의 수확이 있게 하라고 부르고 계신다. 우리 인생에 그러한 영광스러운 목표를 갖는다면 얼마나 놀랍겠는가!
- V.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의 유기체 안에서 살고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에 참여함으로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를 누린다—요 16:13-15.
- A. 신성한 삼일성의 유기체에는 세 방면이 있다. 그것은 14 장 2 절에 있는 아버지의 집(교회)과 15 장 1 절-5 절에 있는 포도나무의 가지들(그리스도의 몸의 조성 성분들)과 16 장 21 절에 있는 새로 태어난 단체적인 사람(새 사람)이다.
1. 셋 모두가 교회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분이 산출하신 영광스러운 증가라는 것을 보여준다—12:23-24.
  2. 이러한 유기체는 삼일 하나님의 하나 안에서와 그분의 신성한 분배 안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서는 요한복음 17 장에서 하신 그분의 마지막 기도에서 특별히 이 문제를 위해 기도하셨다.
- B. 요한복음 17 장에 있는 주님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것을 포함한 하나,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믿는이들의 하나를 위한 것이었다.
1. 첫 번째 수준의 하나는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의 하나와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에 의한 하나이다—6-13 절.
  2. 두 번째 수준의 하나는 거룩하게 하는 말씀의 실재 안에서의 하나이다—14-21 절.
  3. 세 번째 수준의 하나는 과정을 거치시고 합병되신 삼일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신성한 영광 안에서의 하나이다—22-24 절.
- VI. 우리는 우리의 영이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으로 충만해짐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함으로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를 누린다—엡 5:18, 골 3:16.
- A. 우리의 영이 그 영으로 충만해진다면, 그 결과는 신성한 속성들이 우리의 인간 미덕들이 된 결과인, 그 영으로 충만된 윤리를 지닌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교회 생활, 개인 생활, 가정 생활일 것이다—엡 5:18-6:9, 4:30, 살전 5:19.
- B. 골로새서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1:18; 3:4)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분이 머리로서의 권위를 행사하시고 그분의 풍성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길은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여, 나의 온 존재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속 존재의 각 부분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열어 드립니다. 주여, 나의 속존재를 주님 자신과 주님의 말씀을 위한 거처로 만드소서.”

C. 우리는 은혜와 진리 안에 있는 새 사람(엡 4:24, 29, 21)에 걸맞는 생활, 사랑과 빛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아내(5:2, 8-9, 13-14, 22-25)에 걸맞는 생활을 하기 위하여 그 영으로 우리의 영이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한다.

© 2008 *Living Stream Ministry*